

2030년 중국 경제발전과 성장 전망

KIEP 북경사무소 (hj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

1. 개요
2.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기회와 도전
3. 중국 경제성장 전망
4. 주요 결론과 경제성장 전략

주요 내용 ●●●

-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DRC-CGE 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법을 통해 2030년까지 중국경제 발전을 전망함. 시뮬레이션 기간은 12차 5개년 계획부터 2030년까지이며, '기준 시나리오',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 '리스크 동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음.
 - '기준 시나리오' 분석 결과 중국의 GDP 성장률은 12·5 계획 기간에 약 7.9%, 2016~20년 동안 7.0%, 2021~30년 동안 6.2%로, 중국은 앞으로도 비교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 분석 결과 GDP 성장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이 높아져 2010~30년 GDP 성장률은 '기준 시나리오' 보다 약간 높을 것이며, 2015년에는 GDP 총액 53조 위안(7.63조 달러) → 2020년 75조 위안(10.79조 달러) → 2030년 137조 위안(19.71조 달러)으로 예측됨.
 - '리스크 동반 시나리오' 분석 결과 총요소생산성과 투자를 하락으로 2011~15년 기간 평균 GDP 성장속도는 0.9%포인트 낮고, 2016~20년 기간 역시 매년 1.3%포인트 낮으며, 2020~30년에는 매년 1.5~1.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됨.
-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겠지만, 자원 환경상의 제약과 경제성장 간의 조화 부족(协调性较差)이 중장기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제약요소가 될 것임.
- 심화된 개혁과 다양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통해 발전방식을 신속하게 전환한다면 경제성장률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화로운 발전으로 산업구조의 고도화, 도시와 농촌의 격차 감소, 자원낭비와 오염물 배출감소 등의 효과를 보게 될 것임.
- 따라서 건전하고 빠른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층 강화된 개혁과 발전방식의 실질적인 전환이 필수적임.

1. 개요

■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DRC-CGE 모형을 이용한 시나리오 분석법을 통해 2030년까지 중국경제 발전을 전망함.¹⁾

- 시물레이션 기간은 12차 5개년 계획 기간부터 2030년까지이며, ‘기준 시나리오’,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 ‘리스크 동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음.
- 개혁개방 이후의 발전추세를 기초로 하여 ‘기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주요 요인(인구, 노동력, 자연자원, 수출, 기술진보 등)의 발전추세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함. 이는 정책과 외부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상황하의 경제발전을 반영한 것임.
- 중장기 중국경제 발전이 당면한 주요 리스크와 조정방향에 근거하여 두 가지 대조 시나리오, 즉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와 ‘리스크 시나리오’를 설정함.
 - 중국은 발전방식을 신속히 전환하지 못해 현재 자원과 환경의 압력이 점점 가중되고 산업구조와 투자 소비의 불균형, 심각한 사회 불균형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이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고찰하였음.
 - ‘리스크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경제발전 중 직면할 수 있는 국내외 각종 리스크와 도전을 고려하였음.

■ 아래에서는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 알아보고, 세 개 시나리오별 경제성장 전망과 전략을 정리하고자 함.

2.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기회와 도전

■ 도시화와 공업화는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며, 장기적으로 발전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1978년 중국 도시화 비율은 18%였으나 2009년에는 46.6%로 향상되었고, 2030년에는 65% 수준으로 예상됨. 이러한 도시화는 소비수요를 증가시키고,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수요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 공업화 역시 중국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었지만, 중국 각 지역마다 공업화 정도의 차이가 큼.²⁾

1) 『宏观经济研究』(2011年第6期), 『2030年中国经济情景预测』.

2)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2007), 『中国工业化进程报告-1995年-2005年 中国省域工业化水平评价与研究』, 사회과학원 출판사.

중국 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05년 공업화 수준 지수에 따르면 △ 동부지역은 78로 공업화 후기의 전반 단계이며 △ 동북부지역은 45로 공업화 중기의 전반 단계 △ 중부지역은 30 △ 서부지역은 25로 공업화 초기의 후반단계임.

- 향후 20년 내 중국의 공업화는 완성될 것이며, 지역별 공업화 수준의 차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공업화와 도시화의 발전은 단면적인 구조적 모순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중국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임.

■ 중국 경제성장 요소의 증대한 구조 변화가 있을 것임.

- 중국 인구는 21세기 들어 '저출생, 저사망, 저성장'이라는 현대형 인구증가 단계에 진입하였음.
 - 중국 사회과학원의 연구 결과 중국 인구는 2030년 전후로 최고조에 이르고, 그후로 감소할 것이며, 저수준 성장단계에서 마이너스 성장단계³⁾로 전환될 것임.
 - 2015년 이후 노동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향후 20년 내 노동력 공급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은 개방 이래 비교적 높은 저축률과 자본 축적률을 지속하여 왔음. 하지만 인구 노령화로 저축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 경제발전과 사회보장 시스템에 큰 부담이 생길 것임.
- 동시에 빠른 경제발전으로 지역과 업종에 따라 노동원가가 상승할 것이며, 토지 등의 요소가격 역시 빠르게 상승할 것임.
- 노동원가 절감의 장점이 없어지면서 외자유치 감소로 자본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임.
- 자원 매장량(수자원, 광산자원, 에너지자원) 및 환경용량 부족은 경제성장의 큰 제약이 될 것임.
 - 중국은 인구가 많고 1인당 평균 자원량이 적어 경제성장에서 자원과 환경의 극심한 제약을 받게 될 것임.

■ 신기술 혁명은 미래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임.

- 신성장동력으로는 △ 생명과학 △ 정보과학 △ 선진제조기술 △ 재료과학 △ 자원환경과 공간과학 △ 항공우주기술 등이 있음.
- 세계화 속에 인재, 자금, 기술, 정보화, 화물 등의 이동장벽이 점차 낮아질 것이며, 과학기술자원의 세계적 이동으로 과학기술의 세계 다극화(多極化) 현상이 나타날 것임.

■ 국제구조의 다극화 추세가 두드러짐.

3) 王德文, 人口低生育率阶段的劳动力供求变化与中国经济增长, 中国社会科学院人口与劳动经济研究所工作论文.

- 최근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 국가의 빠른 발전으로 국제구조의 다극화 추세가 나타남.
- 이러한 배경 아래 국제사무 및 각종 체제 관리는 한두 나라 혹은 대국의 주도가 아닌 다수 국가 혹은 비국가단체의 공동 주도가 될 것임.
-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며, 국제사회가 중국에 요구하는 국제적 책임과 의무도 높아질 것임.

■ 공공자원 에너지 상품의 세계화 전략은 각국의 필수전략이 될 것임.

- 향후 세계경제 규모는 계속 커질 것이며, 공공자원 에너지 상품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임.
 -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전미전자산업협회(EIA)는 2005~30년간 세계 자원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겠지만 전체적인 공급, 수요량은 안정된 양상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측함.
- 향후 세계 공공자원 에너지 상품의 수요와 공급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분포는 균형적이지 않을 것임.
 - 현재까지 세계 40종 주요 광석 중 13종 광석 매장량의 75% 이상이 3개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23종의 광석 매장량 75% 이상이 5개국에 집중되어 있음.
- 광산자원의 지역분포 불균형으로 공공자원 에너지 상품의 세계화 전략은 각 나라의 필수선택이 될 것이고, 경제발전을 위한 각국의 공공자원 에너지 상품 경쟁도 극대화될 것임.

■ 경제의 자유화와 세계화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임.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의 경제가 큰 영향을 받아 경제회복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무역보호 성향이 강해져 중국의 수출에 불리한 영향을 주었음.
-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의 간섭과 무역보호가 금융위기에서 파생된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세계경제 성장 촉진에도 불리한 영향을 주는 만큼 경제 자유화와 세계화는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주도할 것임.

■ 소득(이익) 분배 및 구조조정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

- 지역, 도농 및 요소 간의 소득(이익) 분배 차이가 커지고 중국 각 지역간, 도농간, 사회 각 계층간 수입격차 역시 커지며, GDP 대비 노동자 수입의 점유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소득(이익) 분배구조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지만, 이에 따른 어려움도 클 것으로 예상됨.

3. 중국 경제성장 전망

가. 모형 소개

■ 12·5 계획 기간부터 2030년까지 중국 경제성장 전망에 사용된 모형은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서 개발한 DRC-CGE 모형임.

- 시뮬레이션 기간은 12·5 계획 기간부터 2030년까지로, 모형은 42개 생산부문과 12개의 주민 그룹, 5개 생산요소를 포함함.
- △ 생산부문은 농업, 24개 공업, 건축업, 16개 서비스업으로 구성되고 △ 주민 그룹은 7개 도시주민 그룹, 5개 농촌주민 그룹으로 구성되며 △ 생산요소는 농업노동력, 생산직 근로자, 기술직 근로자, 자본, 토지로 구성됨.
- 모형의 기준연도는 2007년으로, 통계수치는 주로 2007년 중국 투입산출표를 기준으로 편집한 2007년 사회회계행렬에 근거하였음.

■ 시나리오 분석법(Scenario Analysis)을 이용하여 향후 중국 경제성장 분석을 실시하였음.

- 개혁개방 이후의 발전추세를 기초로 하여 ‘기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경제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주요 요인(인구, 노동력, 자연자원, 수출, 기술진보 등)이 계속하여 과거의 추세에 따라 변화한다고 가정함. 이는 정책과 외부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상황하의 경제발전을 반영한 것임.
- 중장기 중국 경제발전이 당면한 주요 리스크와 조정방향에 근거하여 두 가지 대조 시나리오, 즉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와 ‘리스크 동반 시나리오’를 설정함(표 1 참고).
- 발전방식을 신속히 전환하지 못해 현재 중국은 자원과 환경의 압력이 점점 가중되고 산업구조와 투자 소비의 불균형, 심각한 사회 불균형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이러한 배경하에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이 중국 경제사회 발전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고찰하였음.
- ‘리스크 동반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경제발전 중 직면할 수 있는 국내외 각종 리스크와 도전을 고려하였음.

표 1. 중국 경제성장 분석 시나리오 설정

시나리오 유형	시나리오 설정
	모든 시나리오의 동일한 기본설정: 1) 총인구 변화추세 외생변수, UN의 예상 통계수치를 이용 2) 노동력 총량의 증가 외생변수, 농업토지의 공급변화 외생변수 3) 이미 실시하고 있는 각종 세율과 이전 지출은 계속하여 불변 4) 2010~30년 국제수지는 점차 균형에 도달
기준 시나리오	이하 설정: 1) 도시화 수준 및 도농인구 외생변수, 2007~20년 도시화율 연평균 0.9%포인트 상승, 2021~30년 도시화율 연평균 0.7%포인트 상승 - 도시화와 공업화의 지속적 추진으로 도시화 수준이 매년 0.85~0.55%포인트 제고될 것임. - 11·5 계획 기간 말에는 도시화율이 47%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2015년에는 약 52%, 2030년에는 약 65%로 제고될 전망이다. 2) 정부 소비증가율 외생변수 3) 총요소생산성(TFP) 외생변수, 2005~20년의 TFP 증가율은 과거 25년의 평균수준을 유지, 즉 약 2%의 수준을 유지(제조업의 TFP는 서비스업보다 0.5~1%포인트 높음) - 농촌노동력의 계속 이동, 인력자본의 누적, 과학기술의 지속적 발전, 체제개혁 강화, 또한 각 부처들은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화되어 2008~30년 TFP 연평균 성장률이 약 2%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4) 기술진보의 경향성 및 중간투자율의 변화 외생변수 - 수출성장 속도가 점차 하락하여 장기간 무역흑자를 보일 것이나 액수가 점차 감소하면서 2030년쯤 대외무역 수출입은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룰 것임.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	신속하고 순조로운 각 체제 개혁의 진행,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 강화, 대폭적인 구조조정 추진,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진전 등을 가정함. 이하 설정: 1) 에너지세, 탄소세를 징수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을 제고 - 기준 시나리오를 토대로 2010~15년 자원세율을 10% 상향 조정, 2010년부터 탄소세 징수, 이산화탄소 톤당 10위안에서 50위안으로 상향 조정, 2010~30년간 평균 에너지 이용 효율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1%포인트 높음. - 탄소세 수입은 주로 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첨단기술산업 조세우대에 이용 2) 교육, 의료 및 과학연구,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확대 - 정부 공공지출 구조에서 조정, 교육, 의료 및 과학연구, 사회복지 방면에 대한 지출 비중 확대 3) 도시화를 신속히 진행하여 노동력 이전 장벽을 점진적으로 해소 - 2010~30년 도시화율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매년 0.25%포인트 상승, 도농 노동력의 이전 가속화

표 1. 계속

시나리오 유형	시나리오 설정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	4) 국유기업, 독점기업의 분배 시스템 조정 - 최근 중국 국민의 저축률 지속 상승,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이 기업의 저축률 상승이며, 이는 경제구조의 부조화를 유발함. 기업의 저축률 상승은 국유기업과 독점기업의 불합리한 분배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국유기업의 저축비중을 낮추고 이윤 상납비중을 2010~30년간 30%에서 40%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함. - 빈곤지역과 빈곤계층에 대한 정부의 이전지출을 상향 조정, 2010~30년 기준 시나리오보다 10~15% 높음. 5) 서비스 산업의 규정 개혁을 완비하고 서비스 산업의 세부담을 감소함. - 장기적으로 중국 서비스업의 비중이 느리게 증가, 이는 현재 중국의 발전환경 및 많은 제도적 규제와 관련이 있다고 봄. - 현재 시장 진입에 한계가 있는 주요 서비스업은 금융, 철도, 고속도로, 항공, 전신, 전력, 도시 급수 등의 독점업종임. - 2010~30년 서비스업의 TFP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0.9%포인트 높고 서비스업의 세부담은 10% 감소함.
리스크 동반 시나리오	이하 설정: 1) 완만한 도시화 진행과 노동력 이전 - 완만한 도시화 발전은 효율적인 노동력 이전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집결 효과와 소비구조 업그레이드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제약하여 “좋은 면서도 빠른(又好又快)” 경제발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2010~30년간 도시화율은 기준 시나리오보다 매년 0.2%포인트 낮음. 도농 노동력의 이전속도 역시 기준 시나리오보다 느림. 2) 세계경제 느리게 회복, 보호무역 나날이 심각 - 대외수출은 경제성장을 이루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2000년 이후 중국의 수출성장 속도는 매년 20% 이상이었고, GDP(재화와 용역 포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23.3%에서 2008년 36.9%로 8년간 12.6%포인트 증가하였음. - 기준 시나리오의 수출수요 성장이 단기간에 정상적으로 회복 가능한 것과 달리 국제시장의 중국수출에 대한 수요는 12·5 규칙 기간 이후에나 정상적으로 회복 가능, 2015~30년간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영향을 받아 수출증가 속도도 기준 시나리오보다 낮음. 3) 국제 에너지 가격상승, 에너지 수입 제한으로 국제 원유가격이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돌아감. - 최근 중국경제의 신속한 발전으로 각 자원에 대한 중국의 대외의존도 역시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원유와 철광석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음. 2007년 중국 생산원유는 1.86억 톤, 수입원유 2.11억 톤, 수입원유는 이미 국내생산량을 초과, 철광성은 1990년 1,419만 톤을 수입 → 2008년 4만 4,413만 톤으로 증가함. 중국 철광석 사용량은 1990년의 1억 9,350만 → 2007년 10억 9,040만으로 증가하여 2008년 중국 철광석의 수입의존도는 49.5%임. 국제에너지와 자원 가격이 상승할 경우 경제발전은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임. 4) 체제개혁 진행이 신속하지 못하고 기술혁신과 효율개혁 또한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여 TFP가 기준 시나리오보다 약 0.4%포인트 하락함.

나. 분석 결과

1) 기준 시나리오

- ‘기준 시나리오’ 설정 아래 중국은 앞으로도 비교적 빠른 경제발전을 보일 것이며, 12·5 계획 기간 동안 GDP 성장률은 약 7.9%, 2016~20년에는 약 7.0%일 것이며, 2021~30년에는 약 6.2%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 성장의 근원을 살펴보면 12·5 계획 기간부터 2030년 사이 GDP 성장에서 자본축적 기여율은 65%를 초과하는 반면 노동력 기여율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자본증가와 비교할 때 노동력 증가의 경제발전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임. 11·5와 12·5 계획 기간 노동력은 계속 증가(매년 0.5%~0.6%)하지만, 2026~30년 노동력 총량이 하락하면서 GDP에 대한 기여도는 마이너스가 될 것임(표 2 참고).

표 2.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GDP 성장 및 그 근원

(단위: %)

연도	2008~10	2011~15	2016~20	2021~25	2026~30
GDP 성장률	8.7	7.9	7.0	6.6	5.9
그 중:					
노동력 성장률	0.4	0.5	0.0	0.0	-0.3
자본 성장률	12.6	9.4	8.4	7.8	6.7
TFP 성장률	0.9	2.0	2.0	1.9	2.0
성장의 근원:					
노동력	0.2	0.2	0.0	0.0	-0.1
자본	7.6	5.7	5.0	4.7	4.0
TFP	0.9	2.0	2.0	1.9	2.0

자료: 『2030年中国经济』(2011), 「经济科学出版社」.

- 12·5 계획 기간부터 노동력 증가와 자본 적립의 경제발전 기여도는 점차 줄 것이며,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는 점차 커짐. 12·5 계획 기간 약 25.6%에서 2030년에는 약 34% 상승함.
-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2030년 중국경제 규모와 1인당 GDP 발전상황은 [표 3]과 같음.
- 수요 측면에서 보면 국제무역이 점차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투자율이 하락함에 따라 주민 소비지출 비율이 점차 상승하며, 2015년 GDP에서 주민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47.5%, 2020년 48.3%, 2030년 49.8%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임(표 4 참고).

- 주민 소비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은 △ 주민소비의 증가 △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노동력 급여의 비율상승 △ 주민 비급여수입 상승 등임.

표 3.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중국경제 규모와 1인당 GDP

지표	2008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GDP (조 위안)	30.07	35.44	51.86	72.84	100.21	133.69
1인당 GDP (만 위안)	2.27	2.63	3.74	5.12	6.94	9.19
GDP (조 달러)	4.33	5.10	7.46	10.48	14.42	19.24
1인당 GDP (달러)	3,263	3,784	5,371	7,358	9,971	13,217

주: 2008년 불변가 계산 적용, 2008년 환율 기준으로 계산(1달러=6.956위안).

자료: 『2030年中国经济』(2011), 「经济科学出版社」.

표 4.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2007~30년의 GDP 구조

(단위: %)

연도	2007	2010	2015	2020	2025	2030
주민소비	36.1	40.3	47.5	48.3	49.9	49.8
정부소비	13.2	13.7	15.0	16.3	17.9	19.7
자본형성 총액	42.2	41.3	35.5	34.1	31.2	29.6
순수출	8.6	4.8	2.0	1.3	1.0	0.8

자료: 『2030年中国经济』(2011), 「经济科学出版社」.

- 산업구조에서 1, 2차 산업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3차 산업비중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세계 각국 발전의 일반적인 추세와 동일함(표 5 참고).
- 분석 결과 중국의 3차 산업비중은 2015년 44.9%, 2030년 51%까지 증가하지만 세계 평균(63%)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표 5.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2007~30년의 산업구조

(단위: %)

연도	2007	2010	2015	2020	2025	2030
제1차 산업	11.3	10.4	7.8	5.7	4.5	3.5
제2차 산업	50.0	48.8	47.3	47.1	46.2	45.6
제3차 산업	38.7	40.8	44.9	47.2	49.3	50.9

자료: 『2030年中国经济』(2011), 「经济科学出版社」.

■ 산업 구조조정으로 취업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됨.

- 노동력은 농촌에서 비농촌지역으로 지속적으로 이전하고, 1차 산업의 취업비중은 12:5 계획 기간 말 33.3%, 2030년에는 20.6%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표 6 참고).

■ 도시화 수준은 2015년 51.1%, 2020년 56.5%, 2030년에 64%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표 6.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2007~30년 구직구조 변화

(단위: %)

연도	2007	2010	2015	2020	2025	2030
1차 산업	40.8	38.4	33.8	28.9	24.9	20.6
2차 산업	26.8	27.1	27.4	28.9	29.8	31.0
3차 산업	32.4	34.5	38.8	42.2	45.3	48.4

자료: 『2030年中国经济』(2011), 『经济科学出版社』.

■ 빠른 경제성장으로 주민소득 수준도 향상될 것임.

- 12:5 계획 기간 말 도시주민 평균소득은 3만 3,500위안으로 2007년보다 70% 증가할 것이며, 농촌주민 평균 순소득도 7,268위안으로 2007년보다 60% 정도 증가할 것임.
- 하지만 2015년 도시·농촌 주민소득 비율은 2010년의 4.29에서 4.61로 상승하고, 2020년에는 4.9 정도 상승하여 도시와 농촌주민 소득차이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됨(표 7 참고).

표 7.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도농 주민 수입변화

(단위: 위안)

연도	2007	2010	2015	2020	2025	2030
도시	19,821	24,547	33,496	44,227	57,743	73,836
농촌	4,602	5,723	7,268	9,010	11,564	14,675
도시/농촌	4.31	4.29	4.61	4.91	4.99	5.03

주: 2007년 불변가격 계산/도농 수입차이 수치는 2007년 중국투입산출표(中国投入产出表)에 편제되어 있는 계산결과임.

자료: 『2030年中国经济』(2011), 『经济科学出版社』.

표 8. '기준 시나리오'에 따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상황 분석

연도	2005	2007	2010	2015	2020	2025	2030
온실가스(CO ₂)							
배출량 (백만 톤)	5,25.6	6,23.9	7,42.3	9,20.9	12,70.3	15,70.3	18,05.6
배출량강도 (톤/만 위안 GDP)	3.07	2.86	2.44	2.22	2.01	1.81	1.63
에너지							
소비량 (만 톤/표준석탄)	224,682	265,583	301,995	412,496	539,889	686,634	842,121
에너지강도 ⁴⁾ (톤, 표준석탄/만 위안 GDP)	1.23	1.15	1.02	0.95	0.89	0.82	0.75

주: GDP는 2005년 가격기준.

자료: 『2030年中国经济』(2011), 『经济科学出版社』.

■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에너지 소비총량은 2007년 26.56억 톤에서 2015년 41.25억 톤으로 증가할 것이며, 2020년 약 54억 톤, 2030년 약 84억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임(표 8 참고).
- 온실가스 배출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배출총량은 2007년 66.24억 톤에서 2015년 96.20억 톤으로 증가하고, 2020년 123억 톤, 2030년 182.6억 톤에 달할 것으로 보임.
- 현재의 경제발전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에너지 소비와 오염물 배출은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며, 중국의 자원환경 적재능력을 크게 초과하여 지속적인 발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표 8 참고).

2)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

■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할 때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는 성장속도, 성장요소와 산업 구조 등의 변화에서 큰 차이가 있음.

■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에서 중국은 여전히 높은 성장속도를 유지할 것임.

- 2010~30년 성장속도는 '기준 시나리오'보다 다소 빠를 것이며, 2015년 GDP 53.0조 위안(7.63조 달러) → 2020년 75.0조 위안(10.79조 달러) → 2030년 137조 위안(19.71조 달러)으로 증가⁵⁾(표 9 참고).
- GDP 성장요소는 이전 투자에만 의존했던 것에서 투자와 기술 및 효율성 개혁으로 전환할 것이며,

4) 에너지 강도(Powered By Site Engine): 국내 1차 에너지 사용총량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치.

5) 2008년 기준으로 계산함.

기술혁신에서 기여도가 커짐. 분석 결과 2030년 GDP 성장률에 대한 총요소생산성(TFP)의 기여수치는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9.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GDP 성장 및 그 근원

(단위: %)

연도	2008~10	2011~15	2016~20	2021~25	2026~30
GDP 성장률	8.7	8.4	7.2	6.6	5.8
그 중:					
노동력 성장률	0.4	0.5	0.0	0.0	-0.3
자본 성장률	12.6	9.2	7.5	6.8	5.5
TFP 성장률	0.9	2.7	2.7	2.6	2.6
성장의 근원:					
노동력	0.2	0.2	0.0	0.0	-0.1
자본	7.6	5.5	4.5	4.1	3.3
TFP	0.9	2.7	2.7	2.6	2.6

자료: 『2030年中国经济』(2011), 「经济科学出版社」.

■ 서비스업의 신속한 성장과 산업구조의 최적화

- 12·5 계획 기간 말 3차 산업비중은 46.8%, 2020년 50.8% 정도가 될 것이며, '기준 시나리오'보다 3.6%포인트 높을 것임.
- 3차 산업구조의 변화와 서비스업의 신속한 발전은 농촌 노동력에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노동력의 도시 이동에 영향을 주어 도시화 수준이 급속도로 향상될 것임.

■ 자본형성 총액, 최종소비지출, 수입, 수출구조는 더욱더 균형을 이룰 것임.

- 2015년 주민 소비지출 비중은 49.7%, 2020년에는 51.9%에 달할 것이며, 자본형성 총액 비중도 2007년 42.2%에서 2015년 33.3%, 2020년 31.4%로 낮아짐(표 10 참고).
- 경제발전에서 최종 소비지출의 역할이 커질 것이며 투자, 소비, 수출비중도 보다 균형을 이룰 것임.

표 10.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2007~30년 GDP 구조

(단위: %)

연도	2007	2010	2015	2020	2025	2030
주민소비	36.1	40.1	49.7	51.9	54.5	55.6
정부소비	13.2	13.7	14.8	15.8	17.0	18.2
자본형성 총액	42.2	41.4	33.3	31.4	27.8	25.7
순수출	8.6	4.8	2.3	1.0	0.7	0.6

자료: 『2030年中国经济』(2011), 「经济科学出版社」.

-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비교적 높은 성장속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조정의 최적화와 생산효율 증가, 에너지 소비총량과 온실가스 배출의 대폭 감소로 에너지 절약과 오염배출 감소에 유리하며 환경보호 및 경제, 자원환경 발전에도 더욱 유리할 것임.

3) 리스크 동반 시나리오

- ‘기준 시나리오’와 비교했을 때 ‘리스크 동반 시나리오’에서는 경제성장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짐.
 - 2011~15년 기간 평균 성장속도는 0.9%포인트 낮고, 2016~20년 기간 역시 매년 1.3%포인트 낮으며, 2020~30년에는 매년 1.5~1.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주요 원인은 총요소생산성과 투자율 하락으로 볼 수 있음.

표 11. ‘리스크 동반 시나리오’에 따른 GDP 성장 및 그 근원

(단위: %)

연도	2008~10	2011~15	2016~20	2021~25	2026~30
GDP 성장률	8.7	7.0	5.7	5.1	4.3
그 중:					
노동력 성장률	0.4	0.5	0.0	0.0	-0.3
자본 성장률	12.6	9.2	6.9	6.1	4.9
TFP 성장률	0.9	1.3	1.6	1.4	1.5
성장의 근원:					
노동력	0.2	0.2	0.0	0.0	-0.1
자본	7.6	5.5	4.1	3.7	2.9
TFP	0.9	1.3	1.6	1.4	1.5

자료: 『2030年中国经济』(2011), 「经济科学出版社」.

- ‘리스크 동반 시나리오’에서 2015년 1차:2차:3차 산업구조는 9.7 : 46.8 : 43.5이며,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7.8 : 47.3 : 44.9임. 즉 ‘리스크 동반 시나리오’는 ‘기준 시나리오’에 비해 농업 비중이 높으며 서비스업 비율은 낮음.
- 제조업 내부의 산업 구조조정 역시 더욱 느려짐.
 - 2015년 고에너지 소비업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5.21%로 ‘기준 시나리오’보다 0.92%포인트 높음. 2020년 45.12%로 감소할 것이나 역시 ‘기준 시나리오’ 보다는 0.9%포인트 높음.
- 에너지 이용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총량 성장속도는 비교적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에너지 강도 역시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남.

- 12·5 기획 기간 말 ‘리스크 동반 시나리오’일 때 에너지강도는 0.92톤이며, ‘발전방식의 신속한 전환 시나리오’일 때의 0.82톤보다 0.1톤 높음.

4. 주요 결론과 경제성장 전략

■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것임.

- 12·5 기획 기간에 경제성장 예상 속도는 7.9%이고, 2016~20년 연평균 성장속도는 7.0%로 전망되며, 2030년까지 6% 정도의 지속 성장이 기대됨.

■ 자원환경의 제약은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주요 원인이 될 것임.

- 경제성장 속도는 여전히 빠르겠지만 에너지 자원 소비총량은 점차 증가할 것이며, 온실가스와 오염 물 배출이 환경에 주는 악영향은 점차 커질 것임.
-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석유소비에 따른 자원공급의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경제 안정에서의 리스크 발생률이 커질 것임.

■ 심화된 개혁과 신속한 발전방식의 전환은 발전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세수 등 가격조절 방식을 이용하여 자원이용의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함.
 - △ 낙후산업의 에너지 절감 △ 산업구조의 최적화 △ 교육홍보 강화로 에너지 자원 효율의 향상을 유도함.
 - 세수와 가격조정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과 관련 기술의 혁신적 연구 및 시장화 확대를 추진함.
-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교육, 의료, 위생 등 공공서비스 지출비중을 늘리고 사회보장 시스템을 완비하여 그 수준을 향상시킴.
- 도시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도시화 공정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아직까지 중국의 도시화 수준은 비교적 낮으며, 농촌의 잉여 노동력 비율은 여전히 높음.
 - 노동력의 이동장벽을 낮추고, 구직률을 높여야 함.
 - 주민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진행되어야 함.
- 서비스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발전을 촉진해야 함.
 - 서비스업 발전은 △ 경제구조의 최적화 △ 취업률 제고 △ 자원절약에 중요한 의의가 있음.
 - 금융, 철도, 도로, 항공, 전신, 전력, 도시급수 등 기초적이고 독점적인 업종에 대한 민간자본과 사회 자금 유입을 허가해야 함.

- 재정세수 방면에서 각종 불합리한 납입금을 감면하며, 징수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서비스업의 조세부담을 낮춰야 함.
 - 생산성 서비스업, 즉 금융, 전신, 교통운수 업종의 개혁과 발전을 신속히 추진하며, 국제 서비스업의 이전과 서비스업 수출을 촉진해야 함.
- 2030년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될 것임. 중국의 경제가 강력해지고 국제지위가 높아지면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며, 국제사회가 중국에 요구하는 국제적 책임과 의무 역시 높아질 것임.

표 12. 주요 기관의 중장기 중국경제 전망 및 의견

예측기관	전망 및 의견
IMF (2008년)	중국은 2030년 세계 2대 경제국가가 될 것이며, 2050년에는 세계최대 경제강국이 될 것으로 전망
EIU (2008년)	2020년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 경제성장의 주축이 되어 미국 다음으로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이며, 세계경제 총량에서 차지하는 아시아지역의 경제총량 비중이 43%에 달할 것으로 예측
골드만삭스 (2009년)	중국은 2027년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며, 그해 경제총량은 21조 달러(현 시장 환율적용)로 분. 2050년 세계경제 구조가 크게 변동될 것으로 예측함.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를 세계 6대 경제대국으로 전망
일본정부 (2010년)	중국의 전 세계 GDP 점유율이 2009년 8.3%에서 2030년 23.9%로 증가할 것으로 보며, 이는 일본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임. 미국을 제치고 세계 GDP 점유율 최고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함. 2009년 전 세계 GDP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순이지만 2030년에는 중국, 미국, 일본, 인도 순이 될 것으로 예측함. 또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전체의 비중이 2009년도 25%에서 2030년 40%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PwC (2010년)	2020년에 중국경제 총량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 2030년 세계 10대 경제국가를 중국,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러시아, 독일, 멕시코, 프랑스, 영국으로 예측함. 2030년 전 세계의 GDP 점유율은 중국 19%, 미국 16%, EU 15%, 인도 9%로 전망

자료: 『중국경제시보』(2011년 7월 8일자).

<참고자료>

『宏观经济研究』(2011年 第6期), 「2030年中国经济情景预测」.

China Economist. 2011. 2011年 第6期, “Simulated Scenarios for China’s Economic Growth.”

『中国经济时报』(2011), “‘十二五’至 2030年 中国经济增长前景依然精彩”(7. 8)

『2030年中国经济』(2011), 「经济科学出版社」.

자료 정리: 청화대학 경제관리학원 박사과정 서은형 (nach79@hotmail.com)